

보도시점 (온라인, 지면) 2025. 7. 12.(토) 12:40

## 폭염 대비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 보호 및 물놀이 안전관리 실태 점검

□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됨에 따라, 7월 12일(토) 산불 피해지역 임시주거시설\* 운영 상황과 물놀이구역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.

\* 경북 5개 시군(안동, 의성, 영양, 청송, 영덕)에 2,442세대 4,282명 임시거주 중

□ 먼저, 경상북도 청송군과 영양군에 마련된 임시주거시설을 방문해, 시설에서 생활 중인 산불 이재민의 건강과 안전을 살폈다.

○ 식사·냉방 등 생활에 불편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, ▲야외 무더위 쉼터 및 수도전 설치 ▲전담 공무원 안부 전화 ▲살수차 운영 상황도 꼼꼼히 점검했다.

○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이 전기요금 부담 없이 냉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, 전기요금 감면\*을 포함한 지원 대책을 적극 안내할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했다.

\* 최장 1년 6개월(한전 9개월 간 100% 감면, 지자체 재해구호기금 활용 이후 50% 감면)

□ 충청북도 보은군 서원계곡도 방문해 안전관리 요원 배치, 안전시설 관리 등 물놀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,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안전관리 요원들을 격려했다.

□ 한편, 이날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충청북도 충주 지역에 위치한 무더위 쉼터를 찾아 냉방기기 작동 상태, 쉼터 운영 시간 등을 점검하고, 쉼터를 이용하는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.

□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“무더운 날씨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, 정부는 폭염과 물놀이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”라고 밝혔다.

○ “국민 여러분께서도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과 물놀이 안전수칙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”라고 당부했다.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재난복구지원국<br>경북·경남·울산지역산불피해 복구지원단 | 책임자 | 부단장 이상원 (044-205-6470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서기관 전병훈 (044-205-6471) |
|       | 안전예방정책실<br>재난안전점검과              | 책임자 | 과 장 박범수 (044-205-4240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강 철 (044-205-4242) |

